

명품 수비수 김동진, 홍콩 킷치SC 이끈다

(킷치SC(홍콩) 감독대행)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김동진은 각급 청소년 대표를 거친 뒤 2000년 FC서울의 전신인 안양LG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주로 왼쪽 측면 수비수를 맡았지만 센터백,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을 오갔다.

하지만 잦은 포지션 변경으로 초반에는 적응에 애를 먹었다. 그럼에도 좋은 피치 킷과 뛰어난 공간 활용 능력으로 K리그에서 명품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03년 12월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8강 멤버로 활약했으며 2006년 독일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두 차례의 월드컵을 경험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K리그 선수 베스트11에 뽑히기도 했다.

이후 2006년 독일월드컵을 앞둔 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영표를 이영표와 호흡을 맞출 선수를 찾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 주인공은 김동진이었다.



신반포7차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아드보카트 감독은 포지션이 겹침에도 김동진을 왼쪽, 이영표는 오른쪽에 두면서 2006 독일 월드컵 멤버를 꾸렸을 정도로 김동진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했다. 덕분에 대표팀에서는 한때 '좌동진 우영표'란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이 끝나고 몰러난 아드보카트 감독은 러시아 리그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김동진을 영입해 유럽 무대를 경험하게 했다. 2007-08시즌 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UEFA컵(현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하는 등 전성기를 보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됐다.

2010년에는 국내 무대로 복귀해 울산현대(2010)와 FC서울(2011)을 거쳐 2014년 2월 6일 태국 무앙통 유나이티드 FC로 이적해 2016년까지 뛰었다. 이후 그해 서울 이랜드 FC에 1년 계약으로 입단했다.

이랜드 FC에서 풀백으로 활약했으며 2016 시즌 종료 후 홍콩 프리미어 리그의 킷치SC로 이적했다. 약 4년간 킷치SC에 몸담으며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킷치SC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친선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는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온 선수 생활 마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선수 생활을 더 할 수도 있었지만 2018-19시즌 시즌 플

레이코치로 일하면서 유소년을 가르치다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생각해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힘들었던 시기도 언급했다. 2009년 10월 세네갈과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앞두고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분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뇌혈류 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과주에서 쓰러지고 제 축구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바뀌었다"며 "많은 분이 건강에 대한 문제에 걱정을 해주셨다. 제가 여태까지 된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뛰는 걸 알고 나면 아직까지 뛰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아픈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은 꼭 '김동진이 축구선수로서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것 뿐이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뛰었더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일이 있었음에도 될 수 있었다. 가족에게도 고맙다. 가족이 없었다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한편 2019년 킷치SC에서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김동진은 킷치SC의 1군 수비코치 겸 U-16팀 감독을 맡아 컵대회, 리그 우승 등을 이끌며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8월 킷치SC의 감독대행으로 선임됐다. 김 감독의 지도력을 인정한 킷치는 알렉스 추 감독을 테크니컬 디렉터로 옮기고 김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승격시켰다.

김동진 감독대행이 킷치SC를 어떤 팀으로 만들지 주목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킷치SC(홍콩) 감독대행 김동진. 디자인:매지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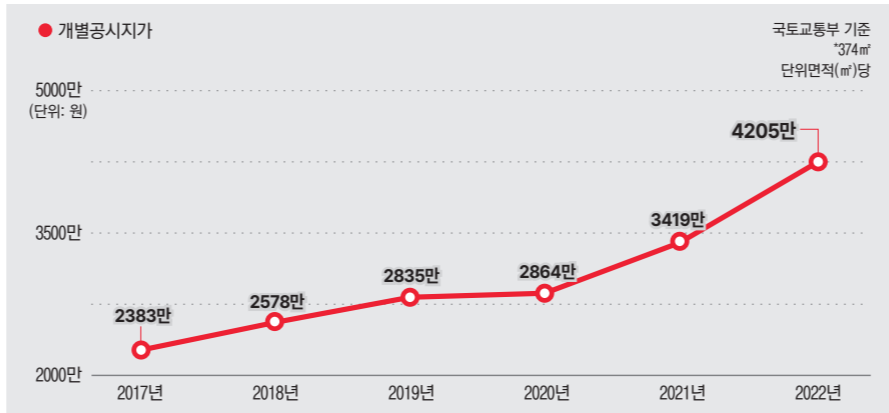
잠원한강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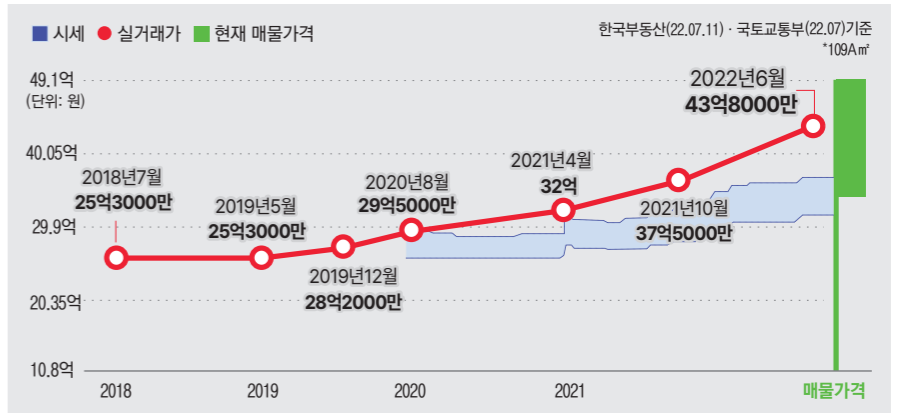
CK빌딩

서울 서초구 잠원동 37-6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9



장기운 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장기운 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수의학 석사, 제주대 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근무한 뒤 수의사 특채(7급)로 1983년 농수산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미국 농무부로부터 2007년 농수산부로부터 복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장을 맡았다. 이어 2008년 농수산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관 동물방역팀장, 2009년 소비자안전정책관실 검역정책과장, 2011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원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으로 통합된 이후 첫 원장으로 재직했다.

장,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을 지냈다. 2017년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천기 현CK성모안과의원 대표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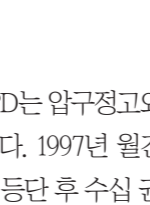


주천기 CK성모안과 대표원장은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생화학 석사 및 안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안과학 교수,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대한검안학회 명예회장,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국제적인 안과 전문 학술지인 'The Open Ophthalmology', 'EyeWorld Asia-Pacific' 등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세계가 인정하는 안과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불린다. 주 원장은 처음에는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의대에 들어갔다. 환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빛을 주는 의

사가 되겠다고 안과를 택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 주 원장은 2009년 11월 케냐를 찾아가 배내장 수술로 실력을 쌓았다. 해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2019년 6월 서울 강남 논현역에 CK성모안과원을 개원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재익 현SBS PD



이재익 SBS PD는 압구정고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97년 월간 문학사상 소설 부문으로 등단 후 수십 권의 책을 출간했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SBS에 PD로 입사해 '두 시 탈출 킬투쇼' '이숙영의 러브FM' 등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이후 '이재익의 정치쇼' '시사특공대'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국내 최장수 팟캐스트 '씨네타운 나인턴'과 유튜브 채널 '이재익 tv'를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 2월 4일 '시사특공대' 진행 중 DJ DOC 노래 '나 이런 사람이야'의 가사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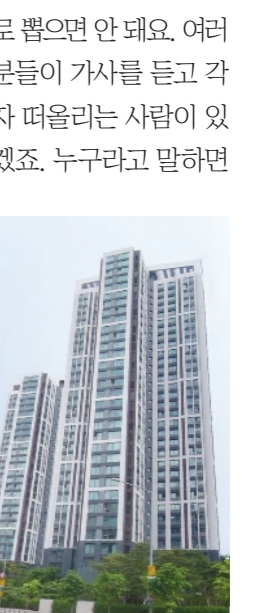
이 방송 없어져요"라고 말했다. 이를 뒤 그는 개인 블로그에 더불어 메인 주당의 혐의와 요구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로 막고'를 소개하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돼요. 여러 분들이 가사를 듣고 각자 떠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라고 말하면



이 방송 없어져요"라고 말했다. 이를 뒤 그는 개인 블로그에 더불어 메인 주당의 혐의와 요구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진 철도공사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대구시, 외지 대형시공사 초청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20일 중앙 1군 외지대형시공사(15개 사) 및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구·군 건축(주택)과장 등과 함께 건설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지시공사의 우수 강제로 지역 자본의 역의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 외지 대형건설사의 대구지역업체 하도급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외지시공사에 지역 우수업체의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공사 일괄참가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70%와 지역의 인력·자재·장비 85%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에는 품질·안전관리, 생산성 관리 등 대기업이 요구하는 협력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정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구시는 기업들의 현장 고충과



대구시청.

대구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한 외지 대형건설사도 지역 하도급 확대와 건설업체 1:1 상담회 추진 등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지 대형시공사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8월 31일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만남의 날인

'상생 매칭데이' 행사를 엑스코에서 진행하며 지역업체 우수 확대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정조정국장은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업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국가철도공단, '춘천역세권 개발' 기본구상·타당성 검토 착수

강원도 춘천시

국가철도공단은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해 춘천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철도역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개발방향 및 규모설정 △철도와 타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환승센터 계획 등으로 공단은 강원대 산학협력단과 (주)유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60만㎡를 대상으로 공단과 강원도, 춘천시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향후 공단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집약된 콤팩트 시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춘천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신규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지속 확

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에서 속초 간 93.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대진 철도공사

뉴스